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정희^o

^o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e-mail: onheon1260@nate.com^o

The Effects of Religious Activity in Adolesc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ung-Hee Yoo^o

^o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능동위주의 학습과 학교교육의 연장, 진로문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역할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의 기대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의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점이 종교 활동을 통하여 고등학생시기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청소년(adolescent), 종교활동(religious activity),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I. 서론

청소년은 사회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닌, 때로는 갈등과 분열의 경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갈등을 종교 활동을 통하여 해결코자 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좀 더 유연하게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자신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통한 생존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연의 모습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종교 못지않게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기제 중에 하나는 자아탄력성이며,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제로서 자아탄력성은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고등학생에 적용해 볼 때 고등학생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신의 내적자원을 찾는데 종교 활동이 연관되며, 심신의 급격한 변화와 가정 및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디고 건강하게 대처함을 통해 진로·진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종교활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활동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등학생의 종교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종교 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고등학교 시절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달과업을 완수함에 있다. 또한 종교 활동의 중요성을 밝히고, 성공적인 진로와 진학을 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사회에 나가 활동함에 있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종교활동

종교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는 지적 발달에 있어서 자율성이 획득되는 시기이며,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시기이다. 둘째, 이 시기는 남녀 간의 역할을 인식하여 새롭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셋째, 이 시기에는 친구와 우정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룹 활동에서 소속감, 안정감,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시기이다. 넷째, 이 시기는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뇌하는 시대들이 종교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 대인관계

인간관계라는 말은 넓은 뜻으로 대인관계(對人關係)이고 좁은 의

미로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화합(和合)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과의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인간 행위 역시 이러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란 소수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며 흔히 인간관계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3. 자아존중감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한 개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가지는 긍정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호의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학 사전에서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는 자아존중감을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현실 혹은 세상에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태도와 믿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청소년기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Coopersmith(1967)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아존중이 중요한 발달단계를 맞이한다고 보았다.

4. 자아탄력성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이며 그것이 상처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의 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ney, 1993).

이처럼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유연한 삶의 방법인 것이다.

윤혜선(2010)은 위기, 삶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고 정상적 성장과 발달이 지속되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 능력, 정지영(2011)은 개인의 생활환경 속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자원이라고 하였다.

5. 종교활동과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먼저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희(2006)는 신앙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목표지향성이 높고, 자기 자신을 좋게 받아들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높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이 겪는 심리적 고통 상황에서도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김재연, 2008).

다음으로 종교활동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로,

강화이(2013)는 청소년이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관련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종교성숙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이나 신념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이는 자존감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종교는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불안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고통에 대해서는 위로와 희망을 얻음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이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순, 2010).

마지막으로 종교활동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숙한 신앙을 지닌 종교인이 자아탄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의 신앙심이 신실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할 것이라고 하였다(정원조, 2011). 또한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영성이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성의 성장에 주목해야 함을 보고하였다(김소연, 2011).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교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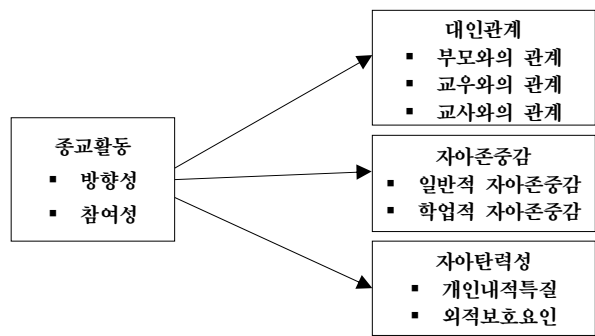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청소년의 종교활동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청소년의 종교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청소년의 종교활동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대상의 표본은 고등학교 남녀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교의 협조를 구한 뒤에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총 400부를 배포하여 40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 무응답 문항이 많은 설문지 87부를 제외한 설문지 31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3.1 종교활동

종교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alony(1995)가 개발한 척도를 석창훈(2001)이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한국형 종교활동척도를 강해순(2005)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종교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3.2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부모와의 관계 측정 문항은 김의철과 박영신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측정 문항은 Dubow와 Ullman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홍정미의 교우지지, 교사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3.3 자이존중감

자이존중감은 Coopersmith & Pope(1967), McChaledhk Craighead(1988) 등의 검사지를 참조하였으며, 최보가와 전귀연(1992)이 자이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연구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4 자이탄력성

자이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이탄력성척도(Ego-Resiliency Scale;ER)를 바탕으로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특성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성별에 있어서 유효응답자 313명 중 남자가 163명으로 52.1%, 여자가 150명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별 학생의 수를 보면 1학년이 180명으로 57.5%, 2학년이 133명으로 42.5%를 차지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Summary of Resondent Characteristics

| 항 목 | 빈 도 | 비 율(%) | |
|-----|------------------|------------|----------------|
| 성별 | 남 여 | 163 150 | 52.1% 47.9% |
| 학교 |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 163 150 | 52.1% 47.9% |
| 학년 | 1학년 2학년 | 180 133 | 57.5% 42.5% |

2. 연구가설의 검증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과 같다. 가설검증결과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설 검증결과 요약

Table 2. Summary of Hypothesis Probate

| 가설 | β | 표준 오차 | t | p | 채택 여부 |
|--------------------|---------|-------|-------|---------|-------|
| 가설1-1.방향성→부모와의관계 | 0.103 | 0.051 | 2.047 | 0.041** | 채택 |
| 가설1-2.방향성→교우와의관계 | 0.085 | 0.042 | 2.031 | 0.043** | 채택 |
| 가설1-3.방향성→교사와의관계 | 0.122 | 0.053 | 2.294 | 0.022** | 채택 |
| 가설1-4.참여성→부모와의관계 | 0.119 | 0.115 | 1.037 | 0.300 | 기각 |
| 가설1-5.참여성→교우와의관계 | 0.162 | 0.094 | 1.720 | 0.086 | 기각 |
| 가설1-6.참여성→교사와의관계 | 0.106 | 0.121 | 0.882 | 0.378 | 기각 |
| 가설2-1.방향성→일반적자이존중감 | 0.108 | 0.042 | 2.585 | 0.010** | 채택 |
| 가설2-2.방향성→학업적자이존중감 | 0.043 | 0.035 | 1.224 | 0.222 | 기각 |
| 가설2-3.참여성→일반적자이존중감 | 0.221 | 0.094 | 2.347 | 0.020** | 채택 |
| 가설2-4.참여성→학업적자이존중감 | 0.195 | 0.078 | 2.495 | 0.013** | 채택 |
| 가설3-1.방향성→개인내적특질 | 0.140 | 0.047 | 2.961 | 0.003** | 채택 |
| 가설3-2.방향성→외적보호요인 | 0.107 | 0.029 | 3.757 | 0.000** | 채택 |
| 가설3-3.참여성→개인내적특질 | 0.179 | 0.094 | 1.660 | 0.098 | 기각 |
| 가설3-4.참여성→외적보호요인 | 0.190 | 0.163 | 2.921 | 0.004** | 채택 |

**p<0.05

V. 결 론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이존중감, 자이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먼저 청소년의 종교 활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방향성의 변수가 부모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순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종교 활동이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방향성의 변수가 일반적 자이존중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성의 변수는 일반적 자이존중감, 학업적 자이존중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방향성이 일반적 자이존중감의 영향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참여성이 학업적 자이존중감, 참여성이 일반적 자이존중감 순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종교 활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방향성의 변수가 개인내적특질과 외적보호요인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성의 변수는 외적보호요인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방향성이 외적보호요인의 영향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방향성이 개인내적특질, 참여성이 외적보호요인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1] 강해순, “수원지역 노인들의 종교활동 및 종교성숙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 강화이,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 김소연, “청소년의 영성과 종교성향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 김은희,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기독교 교육: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 김재연, “청소년의 영적성숙도와 종교성향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김현순, “노인의 종교적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관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7] 윤혜선,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이해리, 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2005.
- [9] 정원조, “기독교인의 종교정향과 신앙성숙도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1967.
- [11] Garmezy, N.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1993.